05월 | 06월

2015 vol.17

삼화 앤 피플

삼화로 날다

새 신을 신고 막 땅을 디디는 그 느낌처럼,
기분 좋은 일이 찾아와 마음이 설레는 그 순간처럼,
삼화앤피플을 만난 당신은 하늘 높이 날아가듯
온 몸 가득 행복이 서립니다.

Contents

2015 May • June Vol.17

S Theme

002 **S Theme part 1**
삼화페인트 공업도료팀
끝없는 열정에 희망이라는 날개를 달고
더 높이 날다

004 **S Theme part 2**
세계를 향해 비상하는 삼화페인트 목공용 도료
'에코우드폼코트'

006 **S Theme part 3**
B급의 맛있는 반란이 세상 날다,
스낵컬처

008 **S Theme part 4**
나를 미치게 하는 직장생활 고민, 뽀개고 날자
테마보고서 – 통계로 본 직장인들의 고민

삼화로 날다

흙 한 점 묻지 않은 새 신을 신고
막 땅을 디디는 그 느낌처럼,
기대하지 못한 기분 좋은 일이 찾아와
마음이 설레는 그 순간처럼,
삼화앤피플을 만난 당신은 하늘 높이 날아가듯
온 몸 가득 행복이 서립니다.

S Focus

010 **삼화를 만드는 사람들**
고객의 웃음에서 인생의 美를 만나다
– 삼화페인트 도봉칠성도료 조은자 대표,
박상원 부대표

012 **삼화의 숨은 일꾼을 소개합니다**
하나로 맞물려 가는 기계의 미학이 좋다
– 엔지니어링팀 박선태 과장

014 **가족, 사진 그리고 이야기**
귀하디 귀한 사람아, 그대의 이름은 가족입니다
– 경영전략팀 김영일 차장 가족

016 **컬러매거진**
엄마와 아이랑 함께 즐기는 컬러 타임,
'맘&키즈 스프링 컬러 클래스'

018 **페인트레시피**
셀프 페인팅으로 화사해진 30년된 아파트

020 **글로벌삼화**
– 꽃보다 삼화 in 뉘른베르크
– 베트남과의 첫만남,
글로벌 삼화를 향한 내일의 발걸음!

023 **피플포커스**
삼화페인트 R&D의 미래를 듣다
– 켄 지나이더직 R&D 연구소장 인터뷰

024 **뉴스포커스**

026 **페인트포커스**
누수 고민 끝!! 방수재에 대한 생각을 바꾸다,
쉉글방수마스터

027 **삼화 포토 콘테스트**
식목일·봄, 꽃과 나무를 심다.
그리고 내 희망을 심다

S Life

028 **컬러로 지도를 밝다**
자연의 향기 가득 품은 초록빛 정원의 향연
– 전라남도 순천시

030 **카툰인마켓**
신혼집 페인트 인테리어 도전!!

031 **Theme로 말해요!**
나를 TV 앞에 붙잡아 놓은 바로 '그 드라마'

032 **문화를 드립니다!**
독자 이야기가 담긴 빨간 우체통
Samhwa & Quiz

SAMHWA PAINTS

[삼화앤피플] 2015년 05·06월호 발행일 2015년 5월 26일 / 발행인 김장연 / 편집인 허성 / 발행처 삼화페인트 서울 중로구 돈화문로 58(묘동 125번지) / 문의 02)765-3641 / 기획·제작 코비즈 02)2272-1400

삼화페인트 공업도료팀

끝없는 열정에 희망이라는 날개를 달고 더 높이 날다

라인성 도료가 주를 이루는 공업도료는 소위 '사람장사'라고 한다. 그만큼 이미 형성된 시장에 후발주자가 들어갈 틈이 굉장히 좁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적시적소', '인타임(In time)'을 최고의 강점으로 내세우며 틈새 공략에 성공한 삼화페인트 공업도료팀. 이제는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객의 마음을 잡다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 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라는 노래 가사처럼 공업도료팀은 고객이 미팅 요청을 하면 국내외 재지 않고 날아서라도 무조건 고객에게로 향한다. "시간 엄수는 우리팀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사항입니다. 선택권이 많은 고객에게 관심을 받는다는 건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간 내에 원하는 제품을 공급합니다. 문제가 발생해서 미팅 요청을 하는 경우엔 더 하죠. 내부사정으로 도료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업체 측의 도장라인은 멈춰버리고 이는 큰 손실로 돌아옵니다. 이런 상황에는 빠른 대응만이 답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가차없이 타사 도료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아요. 고객은 그렇게 관대하지 않거든요."

철저한 시간 관념은 해외에서도 통했다. 그동안의 업무 노하우를 십분 발휘하여 각 고객사의 요구 사항, 라인조건, 제품 물성 등에 대한 최적화된 제품 소개는 물론 도장 작업에 있어서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 고객이 궁금해 하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현재는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에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진행하고 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공업도료팀은 현재 UCP(Urethane Coated Plywood)용 도료에 집중하고 있다. UCP는 목재가 풍부한 동남아시아 열대우림에서 주로 생산되는 거푸집용 합판에 내알카리성 우레탄 도료를 몇 차례 반복적으로 연마 도포하여 방수 처리한 합판을 말한다. 동남아시아에서 삼화페인트 UCP용 도료에 대한 반응은 매우 좋다. 특히 보르네오섬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현지 공장에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도료를 공급하고 있다. 공업도료팀은 안정적인 품질 구현을 위해 라인테스트 차 현지 공장으로의 자주출장을 떠나는데 열대우림 환경 속 출장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현지 공장에 왕도마뱀과 오랑우탄과 같은 동물의 갑작스런 출현으로 당황한 적도 많았고, 우리나라와 전혀 다른 기후 탓에 출장 후 감기를 달고 살거나 체질이 바뀌어 버리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진다. 하지만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했던가. 공업도료팀의 UCP용 도료가 지난 해 사내 신제품 평가에서 우수제품 개발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도료업계에서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 화두는 친환경이다. 공업도료팀은 2015년 TVOC 규제강화 및 전국 확대에 대비하여 국내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월드스테인' 제품을 VOC 함량을 낮추고 건조 속도를 향상시키는 등 품질을 개선한 '월드스테인마스터'를 출시했다. "해외에서는 환경규제로 유성도료에서 수성도료로 시장이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국내는 그 움직임이 드라마틱하게 눈에 띄는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작업성 면에서 수성도료보다는 유성도료를 선호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성도료 못잖은 수성도료 제품을 개발해야 하는 게 저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월드스테인마스터'도 출시했고,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진행해 공업도료 제품에 대한 편견을 깨는 제품을 선보이고 싶습니다."

희망을 보다

아직도 공업도료팀에서 신규 도장업체를 방문하면 '삼화에서도 공업용도료를 생산하나요?'라는 말을 듣곤 한다. "안타깝게도 이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넋 놓고 있을 저희가 절대 아니죠. 국내시장 포화로 이미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려 제품 개발, 신규 업체 도료 공급을 위한 지속적인 테스트와 관련 기술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지속적인 신규 매출 확대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향후 어느 업체를 방문하더라도 '삼화페인트 공업용도료'라고 하면 '아 진짜 우수한 품질과 최고의 기술력이 구현된 제품'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날도 머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공업도료팀은 삼화페인트 내에서 출장이 잦은 부서 랭킹 상위권을 차지한다. 한 번 출장을 가면 현지 공항에 도착해서 프로펠러 비행기로 갈아타고 또 다시 보트를 타고 30분 이상을 정글로 들어간다.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은 우스울 정도로 다이내믹한 여정이지만 모든 경험이 고객에 대한 신뢰의 밑거름이 되어 공든 탑을 만들어 나가는 공업도료팀의 미래는 언제나 맑음이다. S

part 2

글 박철희(마켓팀 대리)

세계를 향해 비상하는 삼화페인트 목공용 도료 !!

에코우드폼코트

삼화페인트는 글로벌 페인트기업을 표방하며 글로벌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삼화페인트의 글로벌 세일즈 1조 달성의 원년이다.
삼화페인트는 성공적 첫걸음을 위해 다양한 제품 군으로 글로벌시장에 도전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목공용 도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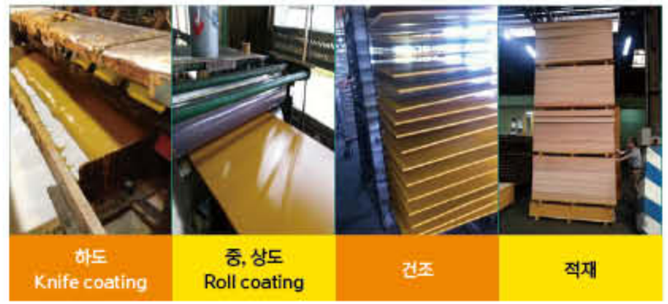
목공용 도료는 다양한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Non-slip type UCP(Urethane Coated Plywood)용 도료는 2014년 신기술개발상을 취득하며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제품으로 글로벌시장에서도 대형 거래처를 확보하여 판매되고 있다.

UCP(Urethane Coated Plywood)는 거푸집용 합판(5매합)의 단면 또는 양면에 내알카리성이 우수한 우레탄 도료를 몇 차례 반복적으로 연마 도포하여 방수 처리한 합판을 말한다. 여기서 거푸집이란 콘크리트 구조물을 소정의 형태 및 치수로 만들기 위해 설치하는 임시 구조물이다. 주로 건설현장의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많이 사용되는데 이는 공사기간, 공사비 및 안전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두께, 너비, 길이, 강도 등은 거푸집용 합판과 같으나 시중에는 3자 × 6자 (90cm × 180cm), 2자 × 6자 (60cm × 180cm)의 제품이 다수이며, 양면을 모두 도장한 제품보다는 한 면만을 코팅한 제품이 많다.

삼화페인트는 자체 기술력으로 현재 동남아시아(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지역에 다양한 수종 및 도장 조건에서의 개량 실험을 통해 하도 / 중도 / 상도 System을 개발하였으며, 원활한 도료 공급 및 안정적인 도장라인에서의 작업을 위해 도료 제어기술까지 확보했다. S

목재거푸집(UCP) 생산공정



기술의 발전성

타사 기존제품

1 습기 경화형 우레탄 상도 사용
2 Anti-blocking성 부여 위해 Slip성이 강함 (안전사고 원인)
3 도막 부착성, 내냉열성 상대적으로 저하

→

당사 신규 개발품

1 AC/UT Type 2액형 상도 사용
2 우수한 Non-slip성 / Anti-blocking성 구현
3 부착성, 내냉열성 우수
4 도막 건조성 우수 / 가시시간 확보

SAMHWA의 기술력 !! GLOBAL No.1 입니다.

"NST-UCP" 도료는 시장 內 기존 제품(일본 C社 및 국내 N社) 대비 Non-slip성에도 불구하고 월등한 Blocking성, 내Scratch성 및 내냉열성이 우수하다.
이러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국내와 국외에서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일본C社에 기술을 이전 함으로써 삼화페인트의 기술의 우수성 및 품질에 대한 경쟁력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B급의 맛있는 반란이 세상 날다, 스낵컬처 (Snack-culture)

부담 없이 간편하게 문화를 즐기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듯 최근 스낵처럼 아무 때나 쉽게 문화를 즐기는 스낵컬처(Snack-culture)가 인기다. 남는 시간 빠르게 즐긴다는 장점을 가진 스낵컬처가 인기를 끌면서 기존에 천대받던 B급 문화들이 덩달아 주목을 받고 있다. 일명 'B급의 맛있는 반란'. 달콤한 즐거움으로 기분을 UP 해주는 스낵컬처, 그 속에서 쫄깃쫄깃한 B급들의 재미를 맛보러 지금 떠나보자.

취향 따라 입맛 따라 골라먹는 문화가 온다

바쁜 일상 속에 찾아온 자투리 시간 10분, 과거에는 친구와 메신저를 주고받거나 커피 한잔 마시는 것밖에 할 수 없던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금은 새로운 게임을 즐기거나 쇼핑하며 옷 한 벌 구매하기 충분한 여유로운 시간으로 바뀌었다. 과거와 다르게 사무실에 앉아 과자를 집어 먹듯이 손쉽게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건 우리가 스낵컬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미국의 한 트렌드 잡지에서 최초로 소개되며 그 이름을 알린 스낵컬처는 스마트기기의 대중화를 등에 업고 주목을 받고 있다.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스마트기기의 특성은 '손쉽고 가볍게 즐기는 문화'를 표방하는 스낵컬처와 딱 어울리는 맞춤 정장과 같았다. 음악, TV, 책, 게임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들은 엄청난 다이어트와 함께 스마트기기에 맞는 모습으로 포장되었고, 이들은 다양한 형태로 변화해 SNS를 통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 '클래시 오브 클랜'도 이러한 과정에서 탄생한 스낵컬처 중 하나이다. 최근 스낵컬처는 대한민국에서 그 꽃을 만개했다. 스낵컬처와 관련하여 무수히 많은 콘텐츠가 대한민국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든 '빨리빨리'를 외치며 금방 흡수하고 쉽게 싫증을 느끼는 한국사람에게 스낵컬처는 딱 맞는 문화콘텐츠이다. 이 때문일까. 2014년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문화예술 10대 흐름'에서도 스낵컬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선정되며 대한민국에서의 무한 성장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B급 문화, 불량식품에서 명품식품으로 변신하다

자고로 '불량식품이 더 맛있는 법'이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먹지 못하게 해도 동네 문방구를 지날 때면 항상 즐겨먹던 불량식품들. 지금은 추억의 먹거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문화콘텐츠 시장에서도 스낵컬처의 등장과 함께 과거에 천대받던 'B급 문화'가 다시금 사랑을 받고 있다. 단순하고 수준 낮아 보이는 모습은 '쉽고 빠르게'를 외치는 스낵컬처 세상에 제격이었던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웹툰'이다. 웹툰은 현시대 문화 트렌드로 자리매김한 대표적 스낵컬처로 리플레쉬한 B급 문화 성공사례 중 첫 손가락으로 꼽힌다. 과거 만화책이 잘나가던 시절, 웹툰은 아마추어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며 관심 밖의 아웃사이더 장르로 치부됐다. 하지만 몇몇 작품들이 탄탄한 스토리를 기반으로 인정을 받으며 그 존재감을 알렸고, 온라인 중심의 시장 변화는 웹툰 성장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짧고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웹툰의 매력은 스낵컬처, 그 자체로 남는 시간을 쪼개 즐기기에 제격이다. 신인 작가들의 자연스러운 참여로 인한 소재의 다양성 또한 많은 사람이 웹툰을 찾는 이유 중 하나이다. 이밖에 가볍게 즐기는 소셜게임의 유행으로 부활한 '2D 게임', 과거 인디성이 강해 천대받던 토막 드라마를 웹에서 새롭게 탄생시킨 '웹 드라마', 개인방송에서 대중매체로 성장한 인터넷 라디오 '팟캐스트' 등의 여러 B급 문화들이 불량식품에서 일탈해 명품식품으로서 스낵컬처 성장을 지탱해 가고 있다.

스낵컬처의 달콤한 맛에 오늘 하루가 즐겁다

각박한 우리 내 일상. 가볍고 부담 없이 재빨리 즐길 수 있는 스낵컬처만 있다면 하루가 달콤해지는 즐거움을 맛볼 것이다. 문화를 넘어 라이프 스타일까지 우리의 일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스낵컬처. 그 속에서 다양한 풍미를 즐기는 우리들의 일상 속 모습을 살펴보자.

우리들의 일상 속 모습

출근길 한 순간 지옥철의 괴로움을 잊게 하는 <웹 드라마>

오늘도 숨 막히는 지옥철과 함께하는 출근길. 앞으로 15분 후면 회사 앞 지하철역에 도착한다. 회사 도착 전까지 힐링을 위해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꺼내 산다라박 주연의 요즘 한창 뜨는 웹 드라마 <우리 헤어졌어요>를 본다. 현재 네이버에서 연재 중인 웹툰을 웹 드라마로 만든 작품으로 웹툰과 비교하며 보면 그 재미가 쏠쏠하다. 웹 드라마의 방영시간은 길어야 15분 정도로 끝날 때쯤이면 목적지에 도착한다.

점심시간 점심시간의 즐거움을 두 배로 <모바일 게임>

점심을 마치고 남는 시간 20분. 스마트폰을 꺼내서 가볍게 게임을 즐긴다. 요즘 모바일 게임은 한 게임을 즐기는데 5분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서 다양한 게임을 다운받아 즐기곤 한다. 오늘은 요즘 즐겨 하는 <클래시 오브 클랜>과 어벤져스의 인기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마블 퓨처파이트>를 다운받아 해볼까 한다. 게임들은 대체로 조작이 간단해 남녀노소 쉽게 즐길 수 있다. 게임과 함께한 점심시간을 마치고 오후 일과를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한다.

퇴근길 오늘 쌓인 스트레스는 득템으로 <소셜 커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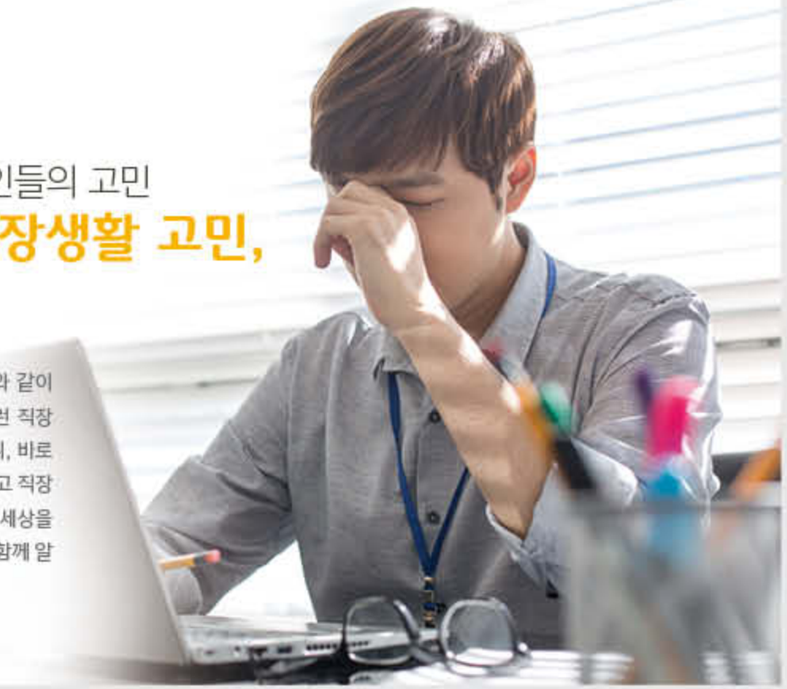
오늘 하루도 직장상사에게 혼나 기분이 별로다. 스트레스에는 먹는 게 최고. 친구와 약속을 잡고 <소셜 커머스 메타사이트>에 들어가 싸게 나온 상품을 찾아본다. 찾던 중 꼭 가보고 싶었던 유명 차이나 레스토랑의 코스요리를 반값에 먹을 수 있는 상품을 포착. '이런 걸 바로 득템이라 했던가'. 바로 구매버튼을 클릭한다. 소셜 커머스는 외식, 의류, 생필품 등 다양한 쇼핑 아이템을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자주 이용한다. 특히 업체별 상품을 인기, 가격 순으로 정리한 <소셜 커머스 메타사이트>를 활용한 쇼핑은 필수다.

취침전 하루의 끝은 자기계발로 <모바일 러닝>

자기계발은 직장인들에게 숙명이라 했는가. 아침잠이 많은 나에게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은 취침 전 시간이 제격이다. 요즘 모자란 외국어 실력을 채우고자 모바일 러닝 애플리케이션 <YBM 페이스 러닝>을 다운받아 공부 중이다. 원어민 교사와 화상으로 수업하며 실시간 채팅으로 문답이 가능하여 학원에서 수업받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스낵컬처 시대의 편리함의 결정판인 것이다. 수업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며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으로 웹 서핑을 즐긴다. 그리고 내일 볼 웹 드라마를 생각하며 잠이 든다.

S Theme

part 4
글 코비즈



테마보고서 – 통계로 본 직장인들의 고민

나를 미치게 하는 직장생활 고민, 뽀개고 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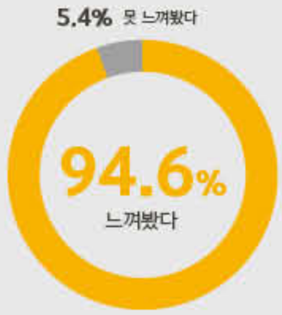
고달프고 힘든 직장생활. 우리 직장인들은 하루살이와 같이 살려고 발버둥치며 오늘 하루도 힘들게 살아간다. 이런 직장인들에 가슴 한켠에 응어리져서 남아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직장생활 속 수많은 '고민'거리들. 가슴에 사직서를 품고 직장상사 뒷담화를 하며 칼퇴가 무엇인지 잃어버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직장인들의 고민은 무엇인지 테마보고서와 함께 알아보자.

CHAPTER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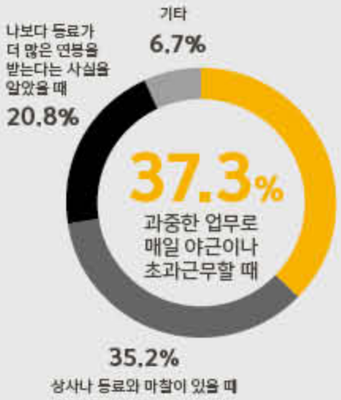
사직에 대한 고민

떠나고 싶으니까 직장이다!
쿨하게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고민에 빠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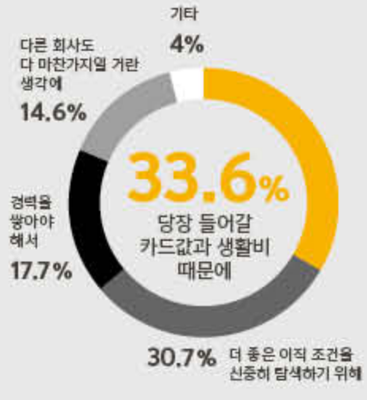
A 당신은 직장 생활 중 사직서를 던지고 싶은 충동을 느껴봤나? (출처: 잡코리아)



B 당신은 언제 사직서를 던지고픈 욕구가 치솟는가? (출처: 잡코리아)



C 하지만 사직서를 내지 못하는 이유? (출처: 잡코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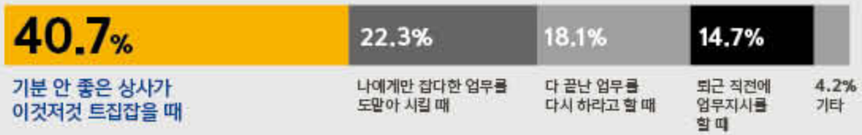
CHAPTER 2

직장상사에 대한 고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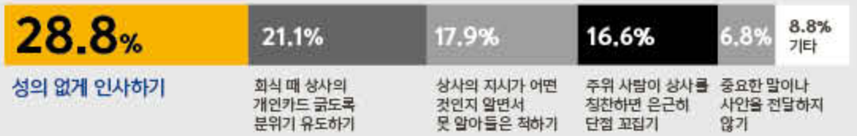
어려운 취업의 문보다 우리 마누라 잔소리보다 무서운 스트레스를 부르는 그 이름 직장상사.

A 나를 힘들게 하는 꼴불견 직장상사? (출처: 한국우체국포털)

B 직장상사 때문에 가장 서러웠던 순간? (출처: 잡코리아)



C 얄미운 직장상사 골탕 먹이는 방법? (출처: MJ플렉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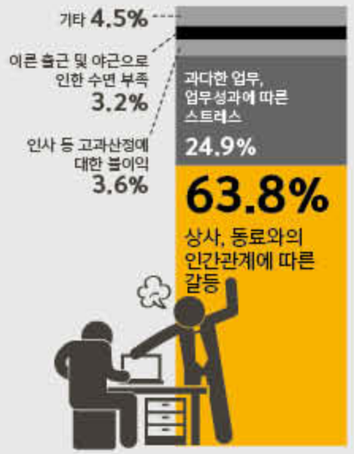


CHAPTER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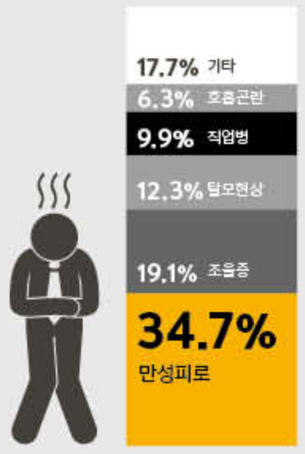
직장인 화병에 대한 고민

대한민국 특유의 문화증후군 '화병', 그 시작은 직장생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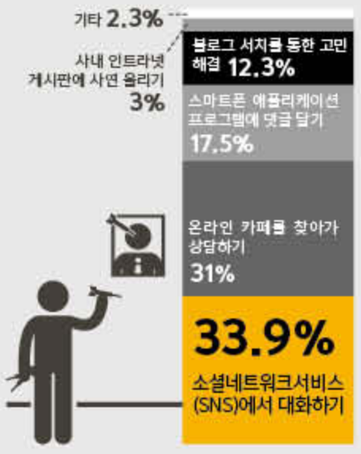
A 직장인 10명중 9명이 앓는 화병, 그 이유는? (출처: 커리어)



B 직장인 화병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가? (출처: 커리어)



C 직장인 화병을 이겨내는 자기만의 방법? (출처: 커리어)



세계적인 희극배우 찰리 채플린(Charles Chaplin)은 얘기했다. 웃지 않고 보낸 하루는 낭비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이는 삼화페인트 도봉칠성도료를 함께 운영하는 조은자 대표와 박상원 부대표가 추구하는 인생의 모토와도 일맥상통한다. 세상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언제나 고객의 즐거움을 위해 각고로 노력한다는 그들의 특별한 스토리 속으로 지금 들어가 보자.

고객의 웃음에서 인생의 美를 만나다

삼화페인트 도봉칠성도료 조은자 대표, 박상원 부대표

시원한 미소가 아름다운 母子와의 만남

어느덧 봄의 절정을 알리는 계절의 여왕 5월이다. 예부터 생명력이 충만하여 풍광을 즐기기 가장 좋은 계절로 5월을 꼽지만 이상기온 때문인지 인터뷰를 위해 도봉칠성도료를 찾아가는 오늘은 봄이 아닌 한여름 날씨 같다. 때이른 더위 속 도착한 도봉칠성도료 그 입구에서 다정스런 모습의 母子가 더위를 잊게 하는 시원스런 미소로 취재진을 맞이한다. 바로 오늘 인터뷰의 주인공, 도봉칠성도료의 조은자 대표와 박상원 부대표이다.

母子가 함께 운영하는 도봉칠성도료의 시작은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은자 대표의 남편은 삼화페인트 창동공장에서 20년간 물류업무를 담당한 삼화인이었다. 그는 퇴직 후에도 삼화페인트에 대한 애정을 놓지 않았고 1996년 10월 1일 지금 이곳 도봉구에 터를 잡고 삼화페인트 대리점을 시작하게 된다. 언제나 처음 시작하는 일은 고되고 힘들다. 도봉칠성도료 역시 다른 삼화페인트 대리점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대리점을 오픈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IMF가 찾아 왔어요. 가뜩이나 경험도 부족해 거래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 정말 난감했죠." 하지만 고생 끝에는 낙이 찾아오는 법. 서서히 노하우를 쌓아간 도봉칠성도료는 조은자 대표 특유의 친화력 덕분에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의 길을 걷게 된다.

경영철학의 시작은 고객의 웃음

"항상 웃으시는 어머니의 밝은 성격이 사람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것 같아요." 박상원 부대표의 이야기다. 어머니인 조은자 대표의 친화력은 주변에서 소문이 자자하다. 밝은 성격으로 고객과 쉽게 친해지고 언제나 고객을 즐겁게 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영업으로 이어진다. 장사꾼 마인드가 아닌 친구 같은 마인드가 고객들에게는 감동으로 전해진 것이다. "저의 경영철학은 고객에게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기분 좋게 웃음을 드리는 거예요. 동네 사랑방처럼 편하게 찾아와 기분 좋게 웃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저희 도봉칠성도료이면 좋겠어요." 조은자 대표의 도봉칠성도료 사무실 정면에는 야유회 단체사진이 걸려있다. 이 사진의 정체는 조은자 대표가 단골 고객들과 만든 칠성모임의 야유회 사진이다. 대리점에서 고객과 모임을 가진다? 약간은 생소한 느낌이 들지만 조은자 대표의 경영철학을 되새긴다면 어느새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칠성모임은 조은자 대표를 중심으로 매달 15일에 만남을 가지는 친목 형식의 모임으로 이곳에서 업계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한다. 한마디로 도봉칠성도료가 제공하는 페인트 커뮤니티인 셈이다. 이 때문인지 도봉칠성도료에는 오래된 단골이 많고 고객과의 유대감도 끈끈하다. 도봉칠성도료 성공의 화룡점정은 아들인 박상원 부대표가 합류 하면서이다. 2007년 도봉칠성도료에 합류한 박상원 부대표는 어머니의 경영철학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주변 대리점과의 소통 또한, 소홀히 하지 않았다. 박상원 부대표의 이런 노력은 도봉칠성도료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함께 웃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모두가 잘되고 있다는 이야기와 같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하는 박상원 부대표의 모습에서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으로 함께 웃으며 나아가는 도봉칠성도료 두 母子의 노력이 가슴 속 깊이 느껴졌다.

내일도 고객과 함께 함박웃음

박상원 부대표의 유일한 취미는 낚시지만 최근에는 캠핑 삼매경에 빠졌다. 가족과 함께 휴일을 즐기기 위해 캠핑 트레일러를 구입했기 때문이다. 쉬는 날이면 언제나 업무용 화물차에 캠핑 트레일러를 연결하고 가족과 캠핑을 다니는 것이 요즘 박상원 부대표의 유일한 낙이다. 그러면서도 이게 다 자신에게 물질적 여유를 준 삼화페인트 덕분이라 말하며 고마움을 전한다. 언제나 고객과 함께 웃으며 덩달아 삼화페인트도 웃게 만든 도봉칠성도료. 인터뷰를 마치고 글을 쓰며 고객과 함께 함박웃음을 짓고 있는 둘의 모습을 상상해봤다. 그리고 앞으로 쭉 고객의 웃음 속에서 인생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나갈 母子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S

하나로 맞물려 가는 기계의 미학이 좋다

엔지니어링팀 박선태 과장

매일매일 쉬지 않고 돌아가는 삼화페인트 공장. 모든 부품 어느 것 하나 할 것 없이 모두 유기적으로 돌아가 하나의 생산설비가 된다 그리고 생산의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애쓰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으니, 그곳은 바로 엔지니어링팀이다. 그 중 지난 호에서 이야기를 나눴던 생산4팀의 임승호과장이 추천한 박선태 과장을 이번 호 '숨은 일꾼을 소개합니다'에서 만나보았다.

불량 없이 나오는 제품 속에 느끼는 희열

'24시간이 모자라!'. 박선태 과장의 업무에 딱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싶다. 오전 8시까지 출근하여 작업지시서를 보며 빠르게 업무사항을 파악한 후 작업지시를 내린다. 그리고 현장에서 온 요구사항을 확인하러 공장 안을 바삐 돌아다닌다. 최근에는 PCM도로가 공주공장으로 이전하면서 관련 업무도 늘어나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업무 특성상 여유부리면서 있을 수가 없어요. 기계 고장이 발생되었을 경우 단순한 수리비 손실보다는 생산손실이 크고, 개별설비가 아닌 하나의 유기적인 프로세스로 이루어진 작업공정이에요. 기계 한 대의 단순 고장이 전 생산라인을 멈추게 하고 치명적인 매출손실을 발생시켜 생산설비 하나하나가 고장 없이 생산활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안산공장뿐만 아니라 공주공장 설비도 맡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시간 싸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공장에 편히 숨 고를 틈도 없다곤 하지만 그 안에서 느끼는 보람은 배가 되어 돌아온다. "최근에 RS-1217 반응기 교체공사가 이루어졌어요. 진행 과정에서 협력업체와 의견 조율이 마냥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래도 서로 상생협력하여 기존 반응기의 문제점을 하나씩 보완해 시공을 완료했고, 반응기에 불량 없는 첫 제품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당시 상황들이 생각나고, 뒤돌아 보면 정말 뿌듯한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노고를 풀겸 마무리 기념으로 다같이 술 한잔 할 때 제일 좋습니다."

제 일에 몰두하고 돌아가는 기계처럼 한결같이

멈출 수 없는 공장 가동과 설비교체 작업으로 여유 있게 시간을 내기란 다소 무리가 있지만 짬이 생길 때면 가족들과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읽고 싶었던 책을 읽으며 그야말로 휴식에 집중한다. "기계가 언제 어디서 어떠한 문제를 일으킬 지 모르고, 그 문제가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언제나 긴장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쉴 때는 무조건 휴식입니다. 그리고 요즘엔 책을 좀 많이 읽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업무와 관련된 분야는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데, 너무 그쪽에만 집중하다 보니 생각이나 시야가 너무 한 쪽으로만 치우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학,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엔지니어로 살아 온 시간만큼 생산설비의 변화도 직접 몸으로 느껴오면서 박선태 과장은 새로운 꿈을 그려나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최적화된 페인트 공장을 만드는 것이다. "그동안 페인트 제조가 직원의 숙련도에 의해 생산성과 품질이 결정되어 왔다면 앞으로는 설비 관리 기술에 따라 생산성과 품질이 좌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산업구조가 점차 복잡해지고 전문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자동화, 무인화에 대한 요구가 점차 심화되어 가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따라 저도 여기에 맞게 게으름 피우지 말고 준비를 해나가야겠죠."
박선태 과장은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이 한 마디에는 복잡한 메커니즘과 안전사고라는 불안 요소가 늘 함께하는 엔지니어 박선태 과장의 삶에 대해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주어진 상황에서 묵묵히 제 할 일하는 기계처럼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박선태 과장. 그는 진정한 삼화페인트의 숨은 보석과 같은 엔지니어다. S

"변화의 흐름에 따라 저도 여기에 맞게 게으름 피우지 말고 준비를 해나가야겠죠"

Notice

다음 호에서는 박선태 과장이 추천한 삼화페인트의 숨은 일꾼 **전자재료팀 정재덕 책임연구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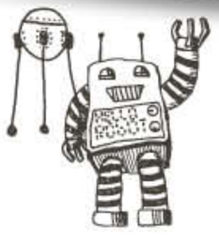
S Focus

가족, 사진 그리고 이야기
취재 코비즈
사진 임재우
장소 세인트엠스튜디오
메이크업 Fab Image

귀하디 귀한 사람아, 그대의 이름은 가족입니다

김영일 차장(경영전략팀) 가족

띠동갑에 마냥 어리게만 느껴졌던 정영옥씨를 아내로 맞은 지 올해로 15년. 그 사이에 장래희망이 항공기 기장인 듬직한 장남 찬영이, 얼굴에 장난끼와 똘똘함이 묻어 나오는 차남 준영이, 두 형들을 거울삼아 뭐든 배움이 빠른 막내 민영이까지 든든한 세 아들들이 태어나면서 한 가족이 되었다. 평범한 나날들 속에 소박한 행복을 누리는 김영일 차장의 가족을 소개한다.



Notice

삼화앤피플이 삼화인분들께 가족사진을 선물합니다. 가족사진을 찍고 싶은 삼화인은 간단한 사연과 함께 연락처를 적어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당첨된 분들께는 가족사진 촬영과 함께 앨범을 선물로 드립니다. 삼화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응모는 이쪽으로 ⇒ 삼화앤피플 공식 이메일주소 speople@spi.co.kr

친근하게, 친구같이

'의외로 굉장히 밝고 화기애애하다'. 이것이 김영일 차장 가족의 첫 인상이었다. 아들만 셋인 가정, 특히 사춘기를 보내고 있을 중학생이 있는 가정의 고요한 분위기를 예상했건만 그 생각은 빗겨 나갔다. 그 분위기의 원천은 아버지와 세 아들들에 있었다. "부모자식 관계도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야 서로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깊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휴일엔 밖에서 아이들과 보내려고 노력해요. 활동적인 사내아이들이라 운동을 통해 소통을 많이 합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다보니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축구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주말에는 찬영이와 같이 축구 동호회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세상 그 누구보다 좋은 아빠라면 아내에게는 어떤 남편일까. 아내 영옥씨는 "아빠로써는 100점이지만 남편으로는 0점이에요. 다시 태어나면 찬영이 아빠 딸로 태어나고 싶을 정도니까요. 가사일에 조금만 더 도움을 준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남편이에요"라고 말한다. 이러한 영옥씨의 마음을 알았는지 김영일 차장은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사내 아이 셋을 키우고, 집안 일도 빠짐 없이 잘 챙기는 모습에 정말 슈퍼우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함께 해주어서 정말 고마워요. 이제는 가사일도 돕는 남편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네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

김영일 차장 가족은 10년 전부터 1년에 한 번은 꼭 가족 여행을 떠나 행복한 추억을 만든다. 가사일과 아이들을 돌보느라 늘 정신 없는 아내 영옥씨에게 휴식 시간을 선물하고, 여행을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다. "가족 여행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특히 매년 여행 중에 아이들이 그 사이에 또 자랐구나 하고 느낄 때가 많은데요, 그 때가 아버지로서 뿌듯합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여행에 대한 의견도 내고, 스스로 준비도 해요. 올 여름에 괌으로 여행가기로 했는데, 그것도 아이들이 의견을 줘서 정하게 된 거예요." 김영일 차장에게 가족이란 책임감을 갖고 지켜내야 하는 귀하디 귀한 존재다. 사랑스러운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세 아들. 이 귀한 사람들에게 커다란 나무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김영일 차장이다. 나무 밑에서 편히 쉬기도 하고, 세상의 비바람을 피할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엔 땔감으로 보탬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 이것이 언제나 가슴에 품고 있는 진심이다. **S**

S Focus

컬러매거진
글 이미리[컬러개발팀 주임연구원]

엄마와 아이랑 함께 즐기는 컬러 타임, '맘&키즈 스프링 컬러 클래스'

컬러개발팀에서는 컬러개발 및 연구와 함께 '컬러'를 주제로 다양한 컬러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 홈앤톤즈에서 진행한 '맘&키즈 스프링 컬러 클래스 – 컬러야 놀자'는 아이와 엄마가 함께하는 컬러 교육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은 컬러 기초 이론을 통한 색채 놀이 수업을 받았으며, 엄마들은 인테리어에 활용 가능한 컬러 강의를 받았다.

컬러와 함께 놀자!

아이들에게 컬러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컬러는 상상력을 자극하고 정서와 심리, 학습 효율 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양한 컬러를 접하는 컬러 교육은 IQ는 물론 EQ를 키워준다. 이번 컬러 클래스에서 진행한 '색 폭탄 만들기'와 '컬러 카멜레온'은 아이들이 컬러와 친숙해 지고, 더불어 기초 컬러에 대해 학습하는 효과까지 볼 수 있다. '컬러 폭탄'은 기본 10색상환을 이용한 프로그램이다. 직접 색의 혼합을 통해 색상환을 만들어 봄으로써 쉽고 재미있게 색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컬러 카멜레온'은 '컬러 폭탄' 수업에서 배운 10색생환 색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혼합, 배색하여 아이들 각각의 심리 상태에 따라 서로 다른 컬러의 카멜레온을 완성하는 수업이다. 이번 수업은 무엇보다 아이들의 참여도와 집중도가 높아 더욱 즐거운 수업이 될 수 있었다.

쉽게 배워보는 컬러 인테리어

벽지 보다 페인트가 관심을 받고 있는 요즘, 페인트는 다양한 색으로 자신의 집을 인테리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색을 선정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동안 인테리어에 벽지를 주로 사용해왔을 뿐만 아니라 공간에 다양한 색을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우리문화의 영향도 있다.

엄마들과 함께 한 '컬러로 디자인한 나의 집'은 자신이 원하는 인테리어 컨셉을 직접 선정하고, 컨셉에 어울리는 색을 찾아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여기에 '컬러 테라피'를 더해 우리 아이의 정서에 맞는 색을 찾아주고 우리 가족 정서에 좋은 컬러를 선택함으로써 컬러에 대한 어려움을 덜고 더 가까워 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수업에 참여한 엄마들은 평소 어렵게만 느낀 집 인테리어를 간단한 체험을 통해 경험해보면서 컬러 선택이 조금 더 쉬워 졌다고 했으며, 어디서든 쉽게 받기 어려운 교육이라는 점에 새로웠다고 말했다. 더불어 페인트를 사용하는데 실용적인 교육이 되었다고 말했다. S

Notice

컬러 디자인센터에서는 컬러개발팀을 통해 내부 임직원 및 대리점주, 고객사 등 다양한 대상으로 꾸준한 컬러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컬러응용팀은 CCM관련 기술적인 컬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셀프 페인팅으로 화사해진 30년된 아파트

페인트레시피
글 김예슬[마켓2팀 대리]

최소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인 인테리어의 변화를 주는 최고의 방법은 단연 셀프 페인팅이다. '핑크미아' 삼화페인트 더클래시 리빙작가는 지은 지 30년 넘은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거창한 리모델링 없이 개성 있는 페인팅만으로 새집처럼 세련된 분위기로 연출했다.

컬러로 새 집처럼 변신

주방은 카페의 오픈 바(Bar)처럼 가벽을 세우고 스카이블루 페인트를 칠해 산뜻함을 살렸다. 거실 벽면은 주방과의 조화를 위해 화이트와 라이트 그레이로 분할 페인팅을 시도해 개성을 더하고 자칫 밋밋해 보일 수 있는 벽면에 선반을 설치해 아기자기한 소품으로 사랑스러운 느낌을 강조했다. 아이방은 민트 그린, 화이트, 옐로, 그레이 컬러로 스트라이프 패턴을 만들어 재미있고 활동적인 분위기의 아이방이 완성되었다. 여기서 '핑크미아' 리빙작가의 유용한 팁 하나! 오래된 집일수록 천장이 반듯하지 않으니 수평자를 이용하여 스트라이프 패턴을 만들면 좋은데, 이때 수평자가 없다면 수평을 맞춰주는 어플을 이용하면 꽤 유용하다. S

사용컬러

아이방	SH S 1510-G	SH S 0300-N	SH S 0530-Y	SH S 2500-N
거실	SH S 2502-Y	SH S 0502-Y		
주방	SH S 1020-B50G			

HOUSE INFO

층면적 86m²(26평) / **가구 구성원** 부부와 5세 아들 / **페인팅 콘셉트** 감각적인 컬러와 페인팅 아이디어를 적용해 카페 같은 인테리어 연출 / **사용 페인트** 더클래시 아토프리 Wallpaper, Multi / **페인트 사용량** 주방가벽 1L, 거실 각 1L, 아이방 각 1L 등 / **셀프 페인팅 비용** 18만9000원

근로벌삼화
글 윤대봉[연구지원팀 팀장]

꽃보다 삼화 in 뉘른베르크

2년마다 개최되는 유러피언 코팅쇼(European Coatings Show 2015)는 어메리칸 코팅쇼(American Coatings Show)와 함께 Coating 및 Paint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전시회입니다. 2015년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된 금번 전시회에는 42개국 1,024업체가 참가하였고, 110개 국가에서 약 28,500명의 방문자가 방문하였습니다. 전시장 규모는 62,860m²에 전시면적만 34,624m²에 달하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도료관련 전시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시장 스케치

뉘른베르크 전시장에서 개최된 유러피언 코팅쇼. 9시 개장과 함께 우리의 삼화페인트 6인방, 켄 지나이더직 연구소장, 허귀행 연구센터장, 김형호 유기합성실장, 유영삼 GBS 본부장, 양우정 전략구매팀장, 윤대봉 연구지원팀장(특별출연: 허성 사장)도 수많은 인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바이엘이나 바스프 같은 글로벌 기업의 경우 기업 규모와 비례하여 대규모의 부스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시편이나 카달로그 전시보다는 상담 위주로 진행하는 업체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국도화학이나 미원 스페셜티 같은 한국기업도 독립 부스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는데,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특징으로는 오후 4시가 넘어가면서 맥주나 와인을 마시거나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점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세계 속의 삼화

삼화의 주요 파트너인 NCS를 독일에서 만나게 되어 무척이나 반가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삼화의 컬러북 SAMHWA NCS COLLECTION 9500이 당당하게 진열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로피언 코팅쇼에서는 매일 EC Show Daily를 나누어 주는데, 2일차 신문에 무려 두 장의 삼화 사진이 실리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한 이번 코팅쇼에서 이렇게 주목받게 되어 삼화인으로서 뿌듯했습니다.

숙소 및 교통수단

시내에서 약 40km 떨어진 한적한 마을에 위치한 Kainsbacher Muhle 호텔은 하루 약 €90 수준의 저렴한 숙박비도 인상적이었지만 조식에 삼화 전용 식탁을 지정하여 삼화로고가 들어가 있는 카드도 올려 놓을 정도로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곳입니다. 코팅쇼 인근 호텔은 €300 가까이 가격이 오른 곳도 있다던데 시내 호텔의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었던 호텔입니다.

독일에서의 택시는 택시승강장에서 타거나 콜택시를 이용해야 하며, 기본 요금은 €2.8(뉘른베르크 기준)부터 시작합니다. 사람이 많은 경우 밴 택시도 유용하며 이 경우는 €5 가 추가됩니다. 숙소에서 전시장까지는 약 40km 였는데 평균적으로 €70 수준이었습니다.

방문단 소감 한마디

켄 지나이더직 연구소장 코팅 및 고분자 분야의 발전된 기술에 대한 전문가의 다양한 주제 발표는 물론 삼화의 기술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원료기술을 보유한 공급업체와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2015 유러피언 코팅쇼는 지속가능 성장이라는 테마 아래 모두를 위한 흥미로운 기회였습니다.

허귀행 연구센터장 수많은 발표 자료 및 제품 소개를 소화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참가자 모두 자기 역할을 잘해주어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생각되며, 새로운 시각으로 세계 기술을 보는 느낌이 '2015 Challenge!'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켜 준 전시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김형호 유기합성실장 다들 밝고, 신바람 나게 생활하면서 자기 일에 애정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번에 찾은 많은 신기술과 새로운 원료를 합성수지 개발에 접목시켜 삼화가 글로벌로 가는 길에 일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영삼 GBS 본부장 Global Player들의 환경에 초점을 맞춘 기술 개발 진행 정도에 많은 자극을 받았고, 동시에 당사의 친환경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해외시장 개척의 가능성도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켄 소장님의 통찰과 인맥, 그리고 참가한 모든 분들의 왕성한 열정과 체력에 감탄했습니다.

양우정 전략구매팀장 1,000여 개의 업체가 참가하여 구매 시 어려움이 많았던 원료들과 가격이 저렴한 원료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이런 정보들은 향후 구매활동 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대봉 연구지원팀장 Congress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Delegate(대표)라고 적힌 명찰을 나누어 줍니다. 이 명찰을 차고 세계 최고의 화학기업들과 인사하고 상담하면서 글로벌 삼화인으로서 책임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서 절대 잊지 못할 시간이었습니다. S

글로벌삼화
글 서정민 [삼화비나 베트남법인장]

베트남과의 첫만남,
글로벌 삼화를 향한 내일의 발걸음!

2008년 9월, 중국 파견 근무를 시작으로 나의 해외근무는 시작됐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낯섦과 '중국'이라는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따라다녔지만 난 그들과의 소통을 통한 인식의 공유로 낯선 곳을 친숙한 곳으로 바꿔갔다. 그리고 2015년 1월 베트남이라는 새로운 터전에서 글로벌 삼화를 향한 첫걸음을 다시 한 번 시작한다.

새로운 곳에서 첫걸음 "안녕, 베트남!"

중국에 파견과 주재원으로 일하며 중국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삼화비나의 베트남법인장으로 자리를 옮기라는 발령 통지서를 받았다. 이제 막 중국생활이 편해지던 참이었는데 '또 다시 낯선 곳에서의 시작인가'라는 걱정과 함께 왠지 모르게 잘할 것만 같은 기대감이 교차했다. 발령받은 삼화비나는 2010년 10월 법인 설립 이후로 지속해서 성장을 이어온 법인으로 삼성전자 모바일폰과 가전이 주요 매출처이다. 이곳 생활을 시작하며 느낀 베트남은 중국과 다르게 20~30대 젊은 사람들이 많았다. 중국은 거리에 나가면 대부분이 50을 넘긴 사람들이 즐비하지만, 이곳은 달랐다. 젊은 사람의 모습이 많이 보였고 왠지 모를 활력이 넘쳐 흘렀다. 베트남의 미래는 밝고 그 성장동력은 확실히 다른 국가보다 위에 있다고 확신할 수 있었다. 베트남은 모바일폰 시장의 발전 가치가 무궁무진한 국가이다. 신규 사용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모바일폰 교체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삼성, 엘지 등 국내 기업들은 앞다투어 시장선점을 위해 베트남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 나 역시 이곳에서 생활하며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베트남의 모습을 몸소 체감하고 있다. 글로벌 삼화를 주창하는 지금, 그들을 이해하고 넓은 안목으로 접근한다면 수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나라가 베트남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글로벌 삼화로 향하는 발걸음

법인장으로 나는 언제나 직원들에게 'Relationship(관계), 'Reputation(평가), 'Timing(선택)' 이 3가지를 강조한다. 적은 인원으로 업무를 보는 해외업무 특성상 항상 서로의 관계를 존중하고, 내부 평가로 자신의 장단점을 알아가며, 우연히 찾아온 기회도 놓치지 않고 결과로 만드는 삼화비나가 되기 위해서다. 해외에서의 생활은 고되고 힘들다. 하지만 국내에서 경험할 수 없는 업무나 해외생활 등은 자신의 가치를 업그레이드시킬 기회가 된다. 이 때문에 난 이 3가지를 직원들에게 언제나 강조한다. 난 오늘도 삼화비나의 모든 직원과 함께 베트남에서 삼화페인트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리고 내일의 세계 속 삼화의 모습을 생각하며 오늘도 발걸음을 내디딘다.S

피플포커스
글. 박지영[마켓지원팀 사원]

켄 지나이더직 R&D 연구소장 인터뷰
삼화페인트 R&D의 미래를 듣다

지난 4월, 삼화페인트의 성장동력을 책임지고 있는 R&D 연구소에 새로운 리더 켄 지나이더직이 취임했다. 삼화페인트 글로벌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미래를 이끌어 줄 켄 지나이더직 소장과 이야기를 나눴다.

삼화 삼화페인트 R&D 연구소 소장으로 취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삼화페인트 직원들은 물론 삼화앤피플 독자들도 소장님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은 같은데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켄 지나이더직(이하 지나이더직) 저의 첫 커리어는 삼화페인트와 유사한 규모의 Reliance Universal이라는 회사의 코팅 사업분야에 몸 담게 되면서부터입니다. 그 후 Akzo Nobel에서 수성코팅, UV, 유성 코팅 등 다양한 코팅 분야 및 고분자 화학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삼화 삼화페인트와는 어떻게 인연이 닿게 되었는지, 그리고 취임 소감이 어떠신가요?

지나이더직 지난 한 해 PCM도료팀, 유기합성지원팀과 함께 일하면서 삼화페인트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당시 연구원들의 근면함과 회사의 성장 및 팀워크에 헌신하는 자세에서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연구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굉장히 기쁩니다.

삼화 삼화페인트 R&D 연구소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지나이더직 마케팅, 영업 그리고 R&D가 전략적으로 상호 유기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혁신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는 공급업체와의 상생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구매팀과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안전사고 없는 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삼화 지금 삼화페인트는 글로벌 넘버원이 되기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삼화페인트 R&D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지나이더직 현재 삼화페인트는 글로벌화의 새로운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새로운 기회도 펼쳐져 있으니 기대감으로 흥분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기대로만 그치지 않기 위해선 우리 앞에 펼쳐질 모습을 그리고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 세계를 관찰하고, 코팅과 전혀 관계없는 분야라 단정짓기 보다는 코팅 기술로 전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고 접근한다면 삼화페인트가 앞으로 개척해 나갈 미래의 시장은 무궁무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삼화 끝으로 함께 동고동락할 연구원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지나이더직 제가 R&D 연구소의 일원이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우리 함께 미래를 내다보고 성공을 향해 나갑시다. S

News Focus

삼화페인트

■ 삼화페인트, 대구 교보문고에서 봄맞이 기획전 개최

삼화페인트는 지난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대구 교보핫트랙스에서 '페인트로 내 집도 변하려나 봄(春)~'이라는 주제로 봄맞이 기획전을 열었다. 이번 기획전은 삼화페인트만의 다양한 DIY 도료를 이용한 제품 시연으로 소비자와의 소통을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셀러브리티한 모델(국악인 송소희)을 활용한 광고홍보, 컬러상담, 제품판매가 함께 이루어졌다. 특히 '아트페인트를 이용한 캐리커처'의 콜라보레이션은 주변 고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발길을 멈추게 하면서 가장 인기 있는 이벤트 행사가 되었다. 이처럼 페인트는 단순히 칠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FUN'한 요소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과의 직접적인 소통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행사 매장 담당자는 "페인트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랐으며, 본 기획전으로 매장에서 페인트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실제로 구매하는 고객들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취재 박철희 [마켓1팀 대리]

■ 삼화페인트, 목재 거푸집용 도료 조성물 특허 취득

SAMHWA 삼화페인트

삼화페인트가 목재 거푸집용 도료 조성물(PAINT COMPOSITION FOR WOODEN FORM)에 대한 국내 특허를 4월 13일 취득했다. 기존 목재 거푸집용 도료는 습기 경화형 우레탄을 사용하는데, 이 경우 수지 특성상 열충격에 약하고 목재와 도료간 부착력이 부족해 거푸집용 패널의 보호가 상대적으로 열악했다. 또한, 강한 슬립성(slip property)으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가 컸다. 삼화페인트가 이번에 개발한 목재 거푸집용 도료 조성물은 습기 경화형 우레탄을 사용하지 않아 이로 인한 문제를 개선하면서도 기존과 비교해 동등 또는 향상된 물성을 나타낸다. 슬립성 또한 상당히 줄어 목재 보호 및 안전성이 향상됐으며 가사 시간이 길어져 롤작업에 의한 도포가 가능하다. 이번 목재 거푸집용 도료 조성물 특허 취득으로 기존 목재 거푸집용 도료의 물성을 안정적으로 구현하면서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해 해당 도료의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취재 박지영 [마켓지원팀 사원]

홈앤톤즈

■ 삼화페인트-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MOU 체결

삼화페인트는 지난 3월 17일 홈앤톤즈에서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업무 협약 체결을 진행하였다. 이번 협약은 생활 속 목재 문화 형성과 가족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바람직한 양육문화 창출, 상호 업무 협력을 통한 상생 발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양 측은 목재 프로그램의 활성화, 서초구 어린이 축제 한마당 추진, 영·유아 목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가족참여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양 기관의 관련 시설과 공간 등의 공동 활용 등을 협약 내용으로 논의하였다. 삼화페인트는 이번 협약을 통해 홈앤톤즈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활용으로 서초구 부모·자녀 간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서초구 내 보육교사 프로그램 진행으로 보육교사들의 스트레스 해소, 서초구 내 부모와 교사들에게 홈앤톤즈 홍보 등을 기대하고 있다. 취재 코비즈

■ 홈앤톤즈, 애드리안 윤의 믹싱아트 전시 'Second Encounter' 개최

삼화페인트 홈앤톤즈는 지난 5월 11일부터 16일까지 홈앤톤즈 매장에서 애드리안 윤 작가의 믹싱 아트 개인전 'Second Encounter'를 개최하였다. 이번 전시는 음악과 미술의 조화로 대중에게 새로운 전시공간과 삶의 힐링을 주는 '즐거운 전시'에 초점을 맞췄다. 수국을 형상화한 다양한 작품들과 야광 페인트를 사용한 작품을 선보이며 예술과 페인트의 조화로 의미를 더했다. 한편, 지난 5월 11일 오후 7시에 전시 오픈식이 진행되었다. 이날 오픈식에는 삼화페인트 허성 사장, 켄 지나이더직 R&D 연구소장, 김향란 컬러개발센터장 등이 참석하였다. 허성 사장은 "지난 2014년에 이어 올해에도 애드리안 윤 작가와 홈앤톤즈에서 인연을 이어가게 되어 굉장히 기쁘다. 페인트와 주택문화의 지평을 열고자 하는 홈앤톤즈와 삼화페인트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라고 축사를 전했다. 취재 코비즈

페인트포커스
글 박철희 [마켓1팀 대리]

누수 고민 끝!!
방수재에 대한 생각을 바꾸다, 쉉글방수마스터

점점 강화되는 환경 규제로 친환경 도료의 개발이 중요시되고 있다. 삼화페인트 역시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VOC 규제에 만족하는 친환경 도료 개발에 많은 연구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친환경 쉉글방수재인 'SAMHWA 쉉글방수마스터'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로 출시와 함께 많은 관심을 받는 신제품 페인트이다.

- **아스팔트 쉉글 지붕의 마감재로 적합한 최우수 도료**
- **VOC 규제를 만족하는 High Quality의 1액형 수용성 방수재(보수재)**
- **타사(N社) 대비 EPDM 고무 칩의 입도가 작은 미분말 타입을 적용하여 로라 작업성이 좋은 제품**
- **아파트, 빌라, 전원주택 등의 아스팔트 쉉글 신축 및 보수 공사에 사용**

이번 신제품은 노후화된 아스팔트 쉉글 보수용으로 탄성 아크릴 에멀젼 수지 및 고무 칩을 주성분으로 수분 침투, 즉 건물 누수 방지의 탁월한 효과로 건축물을 보호하는데 일조하는 제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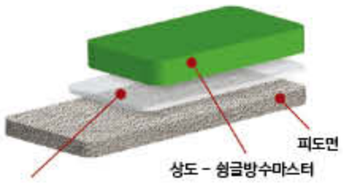
삼화페인트는 제품 적용 공간이 생활과 직접적이며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용하여 다른 방수재 페인트와의 차별화를 강조하고 개발부터 제품의 특별함을 부여했다. 이로 인해 제품은 개발 당시부터 기술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 개발됐다. 이렇게 탄생한 SAMHWA 쉉글방수마스터는 높은 방수 성능과 함께 2~3회 도장으로 아스팔트 쉉글의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는 삼화페인트만의 기술!! 이것이 시장을 선도하며 가온누리로 가는 원동력일 것이다. S

SAMHWA 쉉글방수마스터

제품 특징

- 용도 : 아스팔트 쉉글 지붕의 보수용 도료
- 도장방법 : 로라, 붓
- 도장시스템
  - 하도 – 에포코트아쿠아프라이머(필요 시)
  - 상도 – 쉉글방수마스터



- 색상

적갈색 (SH S 7020-Y80R) | 흑갈색 (SH S 8010-Y70R) | 돌회색 (SH S 5000N) | 진초록 (SH S 7020-G)

삼화 포토 콘테스트
글 박지영[마켓지원팀 사원]

식목일·봄, 꽃과 나무를 심다.
그리고 내 희망을 심다

식목일이 있는 4월, 푸른 산을 꿈꾸며 희망을 심듯 우리 삼화가족들은 4월 동안 무엇을 하며 가슴 속에 희망을 심었을까? 삼화페인트는 삼화가족들의 희망 이야기를 다 함께 공유하고자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름하여 '식목일·봄, 꽃과 나무를 심다. 그리고 내 희망을 심다'! 지난 4월 식목일을 맞이하여 진행된 이 이벤트는 각 팀별 또는 개인이 주제에 맞는 적합한 이미지를 연출하여 응모하는 콘테스트로 총 6팀이 참여하였다. 응모사진을 바탕으로 우수작을 뽑는 투표도 진행되었다. 가족과 함께 채소밭을 가꾸며 보낸 인천영업소의 진광화 과장, 한강 뚝섬에서 개최한 마라톤대회에 참가한 개발센터, 1박2일 단합대회를 보낸 생산1팀이 가장 많은 득표수를 얻어 베스트 3로 선정됐다. 함께 응모하고 함께 투표한 삼화 포토 콘테스트! 앞으로 모두가 즐기는 포토 이벤트를 통해 에너지 넘치고 긍정적인 사내 분위기를 기대해본다. S

개발센터 | 생산1팀 | 인천영업소 진광화 과장

Notice

삼화 포토 콘테스트는 활기찬 삼화페인트만의 문화창출을 위한 기획행사로 두 달에 한 번 사전에 제시된 주제에 맞게 사진을 촬영하고 공유하여, 삼화가족만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벤트이다. 다가오는 6월에는 '가정의 달, 돌도 없는 소중한 내 가족들' 이라는 주제로 포토 콘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컬러로 지도를 빚다
글 코비즈
사진제공 순천만관리센터

전라남도 순천시

자연의 **향기** 가득 품은 **초록빛 정원**의 향연

한 해의 절반을 향해 가고 있다. 매년 시간이 흐르는 속도는 빨라지는 것 같은데 그 동안 제대로 된 길을 걸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하는 길이 진정 나의 길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며 초조해지기도 하는 때이다. 이러한 우리를 보며 대자연의 어머니는 말한다. 그럴 땐 잠시 자연의 품에서 쉬었다 가라고. 숨 고르기가 필요한 지금, 초록빛 생명의 땅 전라남도 순천시의 '순천만정원'으로 향한다.

SH S 1070-G20Y

언덕 그 이상의 의미, 순천호수정원

정원의 동문에 들어서자마자 탁 트인 호수와 솟아 있는 여섯 개의 언덕이 만들어 낸 풍경이 펼쳐진다. 순천만정원의 랜드마크 격인 순천호수정원이다. 정원 밖 세상과 전혀 다른 순천호수정원 모습에 자연스레 걸음을 멈춰 숨을 깊게 들여 마시고 전전히 내뱉으며 풍경 속에 서서히 스며들고자 한다. 여섯 개의 언덕 중 가장 높다는 봉화언덕으로 올라가 본다. 도심 속 하늘 높이 솟아 오른 빌딩에 비하면 이름 그대로 언덕 수준이지만 그래도 정상이라고 바람이 무척 시원하다. 바람을 맞으며 내려본 순천만정원의 모습은 사뭇 다르다. 낮은 시선에선 보이지 않았던 모습이 펼쳐지는데, 세계적인 정원 디자이너 찰스 젱스가 순천에 머물면서 순천의 지형과 물의 흐름에서 착안하여 호수는 순천시를, 나무데크는 동전을 상징하는 디자인으로 표현했다. 이곳에 서면 푸른 하늘과 초록색 언덕 그리고 잔잔한 호수가 이루어 낸 조화에 감탄을 하고, 외국인의 시선에서 순천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에 또 한 번 감탄하게 된다.

정원 탐방으로 세계 한 바퀴

순천만정원은 규모답게 다양한 테마로 구역을 구성했다. 그 중 세계 각국의 정원 문화를 탐방할 수 있는 세계정원구역으로 가본다. 태국, 일본, 영국, 이탈리아, 터키, 스페인, 미국,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중국 등 세계의 다양한 정원 모습을 볼 수 있게 꾸며져 있어 관람객들의 흥미를 끈다. 이중 TV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서양의 화려한 정원 모습으로 방문객들에게 가장 인기 많은 곳이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의 정원이다.

영국정원은 빅토리아 시대 폴리 팜(Folly Farm) 정원을 재현했다. 팜 가든은 식생활에 쓰이는 식물과 정원이 결합된 것을 말하는데, 영국의 생활 문화와 정원이 합쳐진 형태를 말한다. 다양하게 식재된 허브도 살펴볼 수 있어서 왜 영국에 다양한 허브차가 유명한지 알 수 있다. 프랑스정원은 그야말로 화려함 그 자체다. 영국 정원이 일상 생활과 결합된 팜 가든이라면 프랑스 정원은 예술과 결합된 예술 정원이라 할 수 있다. 나무로 만든 조형물이 곳곳에 배치되어 꽃과 나무 외에도 볼거리가 다양하다. 특히 프랑스정원 내 건물과 조형물을 받치고 있는 하얀색 기둥들은 정원의 꽃과 나무와 아름답게 조화를 이뤄 더욱 화려하게 느껴진다. 네덜란드 정원은 가지런히 색을 맞춰 나란히 피어있는 오색찬란한 꽃들이 풍차와 하모니를 이루며 최고의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튤립철에 방문하면 진짜 네덜란드 느낌을 자아내지만 그 시기를 놓쳤다고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 튤립 대신 피어있는 꽃들이 충분히 황홀한 풍경을 자아내고, 이 때문에 풍차와 꽃을 배경으로 사진 찍는 사람들로 늘 북적인다.

자연 속 고즈넉함 물씬 품은 한국정원

한국정원은 세계정원 구역에서 본 정원들과 달리 마음을 차분하게 해준다. 주변 환경과 어우러져 자연 속에서 하나가 되는 건축과 배치를 미덕으로 여겼던 한국 고유의 정원이 주는 고즈넉함이 물씬 풍기는 정취 때문이 아닐까. 돌다리를 건너 주 출입문을 들어서 마주하는 풍경은 부용지와 부용정으로 단아함과 절제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정원 내에 있는 '궁궐의 정원'에는 멸종위기식물 2급에 해당하고 한국 특산종이기도 한 히어리가 식재되어 있어 정원이 한층 더 멋스러워 보인다. 정원 내 '군자의 정원'은 선비의 정원을 보여준다. 옛 선비들이 앉아 시를 읊고 경치를 즐겼을 것만 같은 세심정이 깊은 운치를 더한다. 서석지에는 정겹게 느껴지는 협문과 낮은 담장이 이어지며 또 하나의 풍경을 만들고, 연못 위에 오롯이 서있는 광풍각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한국 전통문화의 가치를 잔란하게 보여주는 듯하다.

꽃길 따라 천천히 걷고 정원을 둘러보는 동안 눈 호강 한번 제대로 하게 된다. 어디 눈만 호강 했을까. 초록 빛깔 자연 속에 묻혀 마음 속에 자리하고 있던 어두운 먹구름이 걷히는 듯하여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쾌청하기만 하다. S

Travel Tip

순천만정원을 갔다면 모노레일을 타고 순천만자연생태공원도 꼭 한 번 들려보자. 광활한 갈대밭과 갯벌이 어우러진 대자연이 눈 앞에 펼쳐진다. 특히 해질녘 붉은 노을과 갈대밭이 만들어낸 황홀한 풍경은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셀프 페인팅 가이드

신혼집 페인트 인테리어 도전!!

카툰in마켓
글 · 그림 정현영

Theme로 말해요!

나를 TV 앞에 붙잡아 놓은 바로 '그 드라마'

절대 본방 사수! 놓치면 재방송으로라도, 그것마저 놓치면 유료결제를 해서라도 보고 싶은 TV 드라마 한 편쯤은 있기 마련이다. 나를 TV 앞에 붙잡아 놓고 울고 웃겼던 바로 그 드라마를 모두와 함께 나누고 싶다.

가족끼리 왜 이래

아버지 순봉씨의 자식 사랑은 보는 내내 눈시울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막장 없이도 재미와 감동을 주었다는 것이 최고의 인기요인인 것 같아요. 요즘엔 드라마마다 온갖 말도 안 되는 막장이 판을 치는데, 이 드라마는 우리네 일상을 담은 그 속에서 기쁨과 슬픔과 행복과 웃음이 있는 드라마였습니다. **_ 경기 화성시 홍세은 님**

넝쿨째 굴러온 당신

'넝쿨째 굴러온 당신'. 김남주가 시댁에서 겪는 사건과 감동이 있는 드라마였어요. 주말에 거의 본방사수했고 나중에 케이블 방송으로 또 봐도 재밌더군요. 특히 얄미운 시누이와의 전쟁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드라마 덕분에 주말에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할 수 있었고, 드라마 보면서 울고 웃고 떠들 수 있었어요. **_ 경기 부천시 홍순희 님**

미생

나에게는 절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사랑 얘기에 공감치 못하던 때. 회사 점심시간, 홀로 옥상에서 점심을 때우던 한 청년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드라마 '미생'은 가볍지도 즐겁지도 않았습니다. 드라마 속의 장그래가 꼭 나 같아서 매회 눈물을 짜내고 속을 끓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마저 취소한 채 TV 앞에 앉아있던 나에게 큰 위로이자 행복이었습니다. **_ 서울 송파구 현고은 님**

네 멋대로 해라

나의 마음을 사로 잡은 드라마 '네 멋대로 해라'. 주인공 양동근과 이나영의 사랑이야기가 첫사랑의 순수함처럼 나의 감수성을 간질간질하게 만든 드라마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심쿵'하는 드라마가 또 나올까요? 솔직 당당한 청춘들의 이야기 '네 멋대로 해라'는 내 인생 최고의 명품드라마입니다. **_ 서울 강남구 최도경 님**

풍문으로 들었소

최근 매주 놓치지 않고 반드시 챙겨 보는 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 이 드라마는 다른 드라마에선 볼 수 없었던 대한민국 초일류 상류층의 속물의식을 풍자로 풀어내 볼수록 빠져드는 매력이 있네요. 최근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갑질'의 위선과 '을'의 우스꽝스러운 행동들까지 인간의 본성을 제대로 꼬집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_ 인천 서구 이가온 님

다음 호 주제는 **<그때는 이를 줄 알았던 '나의 어릴 적 꿈'>**입니다. 대통령, 우주 정복, 세계 최고의 부자 등 허무맹랑하지만 정말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았던 나의 어릴 적 꿈을 이야기 해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CJ상품권 2만 원 권**을 보내드립니다. 삼화앤파플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응모는 이쪽으로 ⇒ 삼화앤피플 공식 이메일주소 | speople@spi.co.kr

[삼화앤피플]에서

독자 여러분께 문화를 선물해 드립니다

회사생활의 활력소! 우리들의 즐거운 이야기를 담는 사보 <삼화앤피플>이 독자 여러분의 참여와 의견을 기다립니다. 삼화앤피플에 대한 소감, 제안 사항, 참여 신청, 퀴즈 정답을 보내주세요. 영화 관람은 물론 외식, 쇼핑 등이 가능한 CJ상품권을 마구마구 쏴 드립니다.

응모는 이쪽으로 ➡ 삼화앤피플 공식 이메일주소 | speople@spi.co.kr
보내실 때는 이름과 소속, 주소, 연락처를 꼭 써주세요~!

독자 이야기가 담긴 빨간 우체통

언제나 관심을 가져주시는 독자분들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독자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앞으로 전진하는 삼화앤피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번 사보가 나올 때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이 번호 '컬러로 지도를 밟다'에서 소개한 영덕대게를 보니 입안 가득 군침이 돌아 그 주에 바로 영덕으로 고고씽 했어요^^~ 이렇게 가볼 만한 곳은 한 곳씩 추천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경기 안산시 김민경 님

우연한 계기에 알게 되어 지금은 삼화앤피플을 즐겨 보고 있어요. 삼화페인트의 직원은 아니지만 삼화앤피플을 통해 페인트에 대해 많이 알게 됐어요. 이번 호는 창립기념호더군요.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울 영등포구 정재철 님

오늘도 S Theme를 재미있게 읽고 갑니다. 특히 파트 4에서 소개한 샤오미 CEO에 대한 정보가 궁금했는데 이번호에서 바로 고민 해결해 주시네요. 다음에도 알찬 정보 부탁드려요!!!

강원 강릉시 황승현 님

방금 사보에서 소개한 더클래시 광고를 봤습니다. 우리 삼화도 드디어 송소희급 모델로 광고를 하다니 무척 뿌듯하네요! 언제나 빠른 정보를 전하는 삼화앤피플~ 감사해요^^

대전 유성구 김래미 님

삼화페인트와 함께 세상에 나온 제품들 코너가 참 흥미롭네요.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이는 스마트폰, 자동차, 세탁기, 캔커피에 삼화페인트의 도료나 내장재가 활용되다니 놀랍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서울 강북구 백혜영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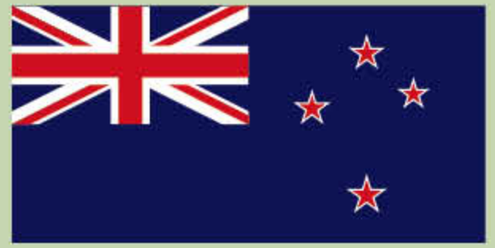
어느덧 삼화앤피플을 즐겨보는 독자가 되어버렸네요. 처음에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삼화란 회사는 어떤 곳인가 하고 보게 되었으며, 매월 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퀴즈풀기에 중독되어 다음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 안산시 박원준 님

Samhwa & Quiz

Quiz 1.

아이엠그라운드 나라 이름 대기!
사진에 보이는 국기는 어느 나라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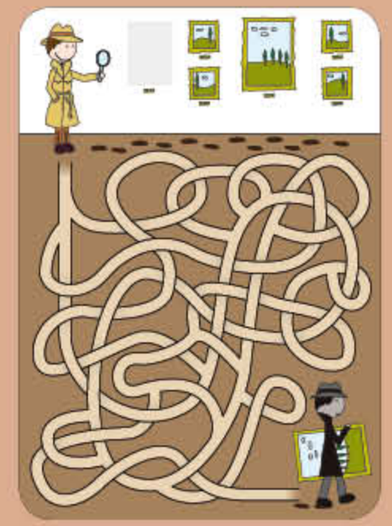
힌트!
1.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이자 영연방 국가
2. 영화 '반지의 제왕'의 촬영지

Quiz 2.

당신을 위한 두뇌 혁명 추리 퀴즈!

삼화미술관 도난사건의 범인을 잡아라!

어느 날 삼화미술관에서 유명한 미술작품의 도난사건이 일어났다. 의뢰를 받은 명탐정 나설록이 조사한 결과 미로 같은 길 중 단 하나만이 범인을 추격해 잡을 수 있는 길이라 한다. 지금 바로 미로 속 단 하나의 길을 찾아 범인을 잡고 삼화미술관 도난사건을 해결하자.



정답을 찾으신 분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함께 보내주세요!

당첨을 축하 드립니다.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문화를 드립니다'의 퀴즈코너 <Samhwa & Quiz>에 응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편집장님과 레인보우기자단의 공정한 추첨을 통해 총 10분의 당첨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호 퀴즈정답 ➡ Quiz 1 정답 : 카타르 / Quiz 2 정답 : 4시 12분

지난 호 당첨자

내화도료팀 **김학훈** 님 / 수원영업소 **신영현** 님 / 자보도료팀 **함경용** 님 / 서울영업소 **안호상** 님 / 유기합성지원팀 **허진욱** 님 / 서울 강서구 **최찬일** 님 / 전주 완산구 **이새름** 님 / 내화도료팀 **박의철** 님 / 경기 안산시 **이재은** 님 / 생산관리팀 **류명희** 님

당첨되신 모든 분들께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객상담실1544 - 5357 | www.spi.co.kr | www.theclassypaint.com

SAMHWA
삼화페인트

바꾸지말고 바르세요

실내를 바꾸는 바른 생각 – 더클래시

삼화페인트 전속모델
송 소 희

Premium Paints
The Classy
Premium Paints with Teflon surface protector
친환경 프리미엄 페인트
더클래시